

건축허가 내 줄때는 언제고…

나주시가 영산포 터미널 건물 지하에 묻혀있는 국유재산인 구거(溝渠=농지개량시설)에 대해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내리는 행정처분을 내려 말썽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는 나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도 볼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9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영산포 버스터미널은 25년 전인 1984년 나주시 이창동 191번지 주변 2필지에 건설됐다. 문제의 시설들은 이보다 훨씬 앞선 70년대 중반 시설돼 농업용 수관으로 사용해오다가 지금은 생활 하수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거는 국유재산으로 그 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

“영산포 터미널 하수관 불법점유”

나주시 25년 만에 변상금 부과 사업주 “당국 실수 덤터기” 반발

시 나주시는 대체시설 설치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터미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후에도 나주시는 지난 89년과 97년 2차례에 걸쳐 구거 위에 증축허가를 내줬다. 특히 최근에는 터미널 화장실이 낡아 신축하라며 5천만원의 사업비까지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민원인의 진정으로 불법 건축물 문제가 불거지고 정부의 감사

를 받자, 나주시는 현재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D산업개발에 대해 83㎡의 불법점유 변상금 1천500여만원을 내라는 행정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D산업개발측은 “지난 90년대 중반 터미널을 인수할 때만 해도 구거와 관련한 불법점유 사실은 법원 경매기록에도 없었다”면서 “급속한 인구감소와 지역상권의 축소로 터미널 이용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느닷없이 변상금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D산업개발측은 “행정당국의 실수로 인한 문제를 현 소유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정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건축허가 당시 나주시에 터미널 관련서류를 요청했으나 오랜 시일이 흘러 찾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나주시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구거 문제는 터미널 허가 당시의 사업주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현 소유주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변상금 납부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사랑의 1004 김장김치’

LG화학 나주공장 300세대에 전달



LG화학 나주공장(공장장 이상연) 사회봉사단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김장김치 담그기를 비롯해 매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통합 봉사활동, 부서별 자매결연 활동, 사택 부녀회 활동, 여사원회 활동, 근무조별 봉사활동, LG복지재단과 연계한 봉사활동 등 총 6개로 나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다.

사회봉사단과 사업가족 등 60여 명은 김장김치를 맞아 최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1004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외국인 가족센터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주부 30여 명도 참여해 나주공장의 사랑 실천을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LG화학 나주공장은 관내 노인정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결식아동 등 총 300여 세대에 ‘사랑의 1004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이 밖에도 LG화학 나주공장 사업과 가족들은 김장김치 담그기를 비롯해 매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통합 봉사활동, 부서별 자매결연 활동, 사택 부녀회 활동, 여사원회 활동, 근무조별 봉사활동, LG복지재단과 연계한 봉사활동 등 총 6개로 나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다.

이상연 공장장은 “사랑의 1004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함께하면서 나주시지역 내에 소외받고 주는 겨울을 보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나주시의 모든 기업이 작은 사랑을 봄소 실천한다면 불우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이용고객 11만명 민원 26만건 처리

광산구 민원지원센터 개소 2년

개소 2주년을 맞은 광산구청 ‘언제라도 민원지원센터’를 이용한 고객들이 11만3천여명으로 집계돼 시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시민의 변화하는 생활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1월 삼성 휠停电 광주 하남점 2층에 민원센터를 개설했다. 민원센터는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본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320여 종의 증명서 발급에 주력해오고 있다. 특히 자정까

지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광주시민 뿐 아니라 타 시·도 주민까지 찾는 평소로 알려져 이용객만 11만3천여명, 민원처리건수도 26만8천여건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2007년도 전국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광산구를 선정하는 한편, 10월에는 ‘민원서비스 100선’에 선정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했다. /광산=기밀태기자 wtkee@

장성군 컬러 토마토 품질인증 박차

국제표준 규격 ISO 인증 획득 교육

장성군이 새로운 대체작물로 육성하는 ‘컬러 토마토’의 품질인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 컬러 토마토 생산단지 13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 표준경영컨설팅 오후 규 교육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ISO 9001(품질경영)과 ISO14001(환경경영) 인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관리자 과정, 추진전 담자 과정, 내부심사 과정 등 3가지로

나뉘 실시됐다. 교육에서는 ▲ISO에 대한 올바른 이해정립 ▲품질·환경 시스템의 관리법 ▲ISO인증 유지를 위한 교육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점검 등 ISO인증 획득 및 유지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대해 실시됐다.

오후 교육팀장은 “ISO 인증을 위해서는 비료, 농약의 관리, 영농일지 작성, 폐기물의 적법처리, 농산물 선별장 환경관리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한국 요리 배우기 담양지역 결혼 이주여성들이 지난 26일 담양군 여성회관에서 풍나물밥과 제육볶음, 불고기 등 한국 생활요리를 배우고 있다. 담양군이 이주여성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문화 생활요리 교실’은 매주 2회 다음달 10일까지 계속된다.

〈담양군 제공〉

“산양삼 보호·육성 제도화 서둘러야”

화순군 법제화 연구과제 중간 보고회

‘고려인삼 시원지’ 화순이 우리나라 산양삼의 유통 메카로 발돋움한다.

화순군은 지난 28일 군청 소회 의실에서 한상섭 산삼학회 회장,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임병옥 세명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 지원 산양삼 법제화 연구과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한상섭 산삼학회장은 “산양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어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인증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부정유통 방지와 안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병옥 교수는 “일반 논·밭 재배 삼과 산양삼을 차별화 한 법제화를 추진해 산양삼 재배경작, 유통, 가공, 검사, 수출 등 산업화를 위한 법 조항을 만들고 있다”며

“산양삼을 특산물로 보호 육성해 산양삼을 산업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원준 군수는 “산양산 산업화를 위해선 ▲종자 복원 ▲종자 보급 ▲모살 재배 ▲재배환경 기준 설정 ▲지리적 표시제 시행 ▲화순을 유통메카로 지정하는 작업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수 한약재

저장시설이 완공되면 화순이 우리나라 산양삼의 유통메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려인삼의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양삼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재배기술을 체계화하지 못하고 기술을 보급할 수 없었다”며 “법안이 마련되면 고려산삼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화순이 우리나라 산삼 시장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산삼학회와 화순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법 조항들을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화순=정운수기자 unsu@

20만명 방문…1억원 판매수익 영암 왕인 국회축제

영암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펼쳐진 2009 왕인 국회축제가 지난 2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영암군은 “지난 10월 29일부터 25일간 열린 왕인 국회축제에 2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 1억원이 넘는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국회축제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관내 화훼농가 등이 전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각양각색의 국화작품들이 선보였다.

특히 대형 왕인문, F1자동차 등 구조물 작품과 다룬대작, 회분국화 등 형형색색의 화려한 국화가 아름다운 시와 함께 어우러져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축제 기간 동안 군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온 20만여 명의 관광객이 국회축제장을 찾았으며 농·특산물, 영암도기, 참빗 판매장 등에서 1

억원이 넘는 판매수익을 올려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일조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축제의 성공을 계기로 지역 화훼농가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인과 소국생산 계약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왕인 국회축제를 전국적인 명품축제로 더욱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이상휴기자 lsh@

대인동삼일부동산

☎ (0)2-1140, 5210 월 011-802-2532
(광주은행 신분점원, 대인동 소방서간판)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다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 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맞춤주택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정돈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월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

소개

업체

인

광

주

시

내

전

지

역

에

상

가

중

개

사

인

부

동

산

을

판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